

■ 연구원 소식

○ 문화교양강좌 『사진으로 역사읽기』 4차 강좌 (6월 24일)

6월 3일 시작된 <사진으로 역사읽기> 교양강좌가 지난주에 20여명의 시민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에드워드 스타이켄의 인간 가족전>을 주제로 다시 찾아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일시: 6월 24일(월) 19시~20시 30분

장소: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주제: 에드워드 스타이켄의 “인간 가족전”

강사: 장근범(사진아카이브 8 대표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운영위원)



<사진으로 역사읽기> 6월 17일 3차 강좌 모습

○ 51차 시민문화강좌 (6월 29일)

“4.3과 여순” - 항쟁인가? 반란인가?

강사: 주철희 박사

장소: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일시: 6월 29일(토) 16시

2019년 3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당한 장환봉 씨 등 여순사건 희생자 3인의 유족(장경자, 신희중, 이기화)이 제기한 재심신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여순사건은 여순반란사건,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여순봉기, 여순항쟁, 여순군란 등으로도 불리며 제주4·3과 함께 민족사의 비극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국가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여순사건은 오랫동안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여수·순천·광양·구례·보성·고흥 등을 비롯 37개 시·군의 광범위한 지역이 죽음의 연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역사 기록은 대체로 승자가 남겼고 승자의 문서로 작성된 여순사건은 많은 내용이 왜곡된 채 전해져 왔습니다. 사건의 주체인 제14연대 군인이 제주도 출동명령을 거부한 핵심은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널리 알리는 것 또한 적폐청산을 앞당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주에서 3만명, 여순에서 1만명의 학살극에 대한 명확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여순사건’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며 지난 2017년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를 비롯해 여러 권의 책을 통해 여순의 진실을 대중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주철희 박사님을 모시고 “4.3과 여순”을 주제로 51차 문화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자유시의 총성 (1921년 6월 28일)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지나는 아무르 주 철로변에 1912년 건설된 알렉세에프스크란 이름의 작은 도시가 있다. 러시아혁명 이후 러시아 적군은 백군으로부터 도시를 해방시켰다는 의미로 “자유”란 뜻의 스바보드니로 도시 이름을 바꿨다. 당시 한인들은 이 도시를 “자유시”라고 불렀다.

3·1운동을 계기로 간도와 연해주에 다수의 한인 항일무장투쟁 조직이 만들어져 1920년대 초반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본군의 탄압으로 대규모 무장투쟁이 어려워지자 부대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연해주와 만주의 조선인 무장부대 통합을 위해 자유시로 모이게 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이때 자유시에는 이미 “자유대대”라는 조선인 무장부대가 조직되어 있었다. 이미 자유시에 동지를 틀고 있던 ‘자유대대’는 자신들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형편이었다. 당시 고려공산당 창건을 둘러싸고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무장부대 통합 지휘권은 공산당 건설의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더욱 격화되었다. 간도와 연해주에서 온 무장부대는 이동휘를 비롯한 상해파와 밀접한 관계였고 자유대대는 이르쿠츠크파가 주도해 조직된 무장부대였다. 이는 훗날 자유시 사변이라 불리는 사태의 큰 원인이었다.

무장부대 통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공산주의 그룹의 대립과 맞물려 새로운 변수가 있었는데 이는 코민테른과 극동공화국이었다. 애초 한인 무장부대의 자유시 집결은 극동공화국 초대수상이었던 크라스노세코프의 지지와 후원에 영향을 받고 진행되었다. 그런데 당시 소비에트러시아 정부가 일본과 휴전협정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극동공화국은 당초 적극적이었던 무장부대 통합 지원 방향을 수정해 무장부대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향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인 무장부대가 자유시 입성 전과 입성 이후 소련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입장 전환은 자유시 사변의 또 다른 이유로 주목되고 있다.

소련 측의 일관되지 못한 입장의 와중에 코민테른 동양비서부로 한인 무장부대 통합 문제가 이관되었다. 당시 코민테른의 대표 슈마츠키는 이르쿠츠크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결국 무장 부대 통합의 주도권은 이르쿠츠크파가 쥐게 되었다. 이들은 러시아 인을 사령관으로 하되 이르쿠츠크파가 주축이 된 자유대대 중심으로 “군정의회”를 조직한다.

여기에 흥범도 부대 등 간도에서 온 한인 무장 부대 대부분이 군정의회 측에 합류하며 그들은 통합의 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질 수 있었다.

통합의 주도권을 쥔 군정의회는 1921년 6월 19일 모든 한인 무장부대 간부 전체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에서 군정의회 중심의 무장부대 통합 결정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자유대대 지도자들과 반목하던 연해주 한인 사할린부대 장교들이 반혁명분자를 처단하지 않은 자유대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군정의회 갈란다라시빌리 사령관은 갈등 조정을 위해 권고와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무장부대 통합이 난망해지자 사할린부대 무장해제를 결정했다. 결국 6월 28일 자유시수비대 제29연대에서 파견된 군대가 사할린부대에 접근했고 이후 제29연대 대장은 사할린부대 본부에 들어가 복종할 것을 종용했다. 사할린부대는 무장해제 명령에 불응했고, 자유시수비대 29연대는 공격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수습에서 수백명의 한인 독립군이 목숨을 잃었다. 한인 부대가 교전이 있었다면 더욱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나 군정의회에 찬동했던 한인 무장부대나 연해주 한인 사할린부대가 직접적 교전은 회피했기에 희생자가 적을 수 있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판단이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자유시수비대 29연대 병력(즉 러시아 측)에 의해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이날의 사건을 한인 무장부대의 이념에 따른 충돌로만 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일 수 있다. 1920년대 초반 무장부대 통합을 통해 일제와 효과적 무장 투쟁을 벌이려던 운동은 이념보다 견해차이, 통합 부대에 성격에 대한 인식의 차이, 소비에트의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들이 중층적으로 잉태한 일이었다.

자유시 사변을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으로 보는 시각과 이념이 주도한 분열에서 일어난 참사로 보는 시각의 견해 차이가 지금 한국현대사의 광장을 양분한 이념 논쟁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21년 6월 28일, 자유라는 이름의 도시에서 나라 잃은 민인들을 향한 총성이 울렸다.

(이번 호 역사 속의 오늘은 윤상원 운영위원이 쓴 <“자유시 사변은 왜 일어났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12호, 2003년>에서 대거 인용했습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원효의 사랑이 담긴 소요산 자재암, 첫 번째 이야기 - 동두천의 소요산

유영봉(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그리운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한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나앉는 날이면, 동두천의 소요산으로 가야 한다. 옛 추억을 곱새기며 이리저리 거닐다가 자재암自在庵에 이르러 원효 대사(元曉大師, 617~686)와 요석공주瑤石公主의 사랑 얘기도 들어 보고, 원효폭포와 옥류폭포의 물줄기에 미련과 아쉬움으로 물든 마음 한 자락을 흘려보내라 권하고 싶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일렁이거든, 맑은 물줄기를 거슬러 선녀탕에 올라가 송수권의 시「산문에 기대어」를 읊고 나서 소리 높여 울어 볼 일이다.

山門에 기대어

누이야 가을산 그리메에 빠진 눈썹 두어 날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믄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더러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 두고
더러는 앞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날이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 음을

이 시는 작자가 동생을 잃은 그리움에서 지었다고 한다. 나중에 나중에라도 환생해서 꼭 다시 만나자는 애절한 다짐이 서걱대며 숨어 있기에 읽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는 시이다.

선녀탕의 시원한 물소리에 이 시를 묻어 두고 하산한다면 마음이 절로 밝아질 터이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다면 자재암의 나한전에 들어가 고요히 눈 감고 앉아 명상에 빠져 봐야 하리라. 그래도 그래도 아니 된다면 굳게 빗장을 지른 백운암 안에서 세상과 단절한 채 수행에 몰두하는 스님네의 마음을 담장 너머에서나마 미루어 볼 일이다. 그리하여 '자재自在'의 교훈 하나를 가슴에 보듬고 산을 내려가야 하리라.

자재암이 등지를 튼 소요산은 서울지하철 1호선이 연장, 개통되어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찾기 쉬운 산이 되었다. 전철이 30분 간격을 두고 소요산역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소요산은 경기의 금강산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산이다. 최고봉인 의상대가 해발 587m밖에 되지 않지만, 온통 암벽으로 이루어진 산이다. 소요산역 쪽에서 보면, 대체로 ㄱ모양으로 굽은 능선을 따라 봉우리들이 늘어서서 절경을 자랑한다. 자재암 뒤에서 왼쪽부터 하백운대, 중백운대, 상백운대, 나한대, 의상대, 공주봉이 감도는 형상이다. 중백운대와 상백운대 사이에서 시작하는 넉넉한 계곡물은 시원스레 흐르면서 중간중간에 폭포를 빛낸다. 소요산은 수석이 남달리 아름다워 예로부터 유명세를 얻었다.

실학 시대를 선도했던 허목許穆은 1643년 10월에 소요산을 구경하고「소요산기逍遙山記」를 남겼다. 그의 나이 70세 때의 일이다.

“소요산은 양주읍의 북쪽 40리에 있는데, 한탄강漢灘江에서 20리가 못된다. 왕방산王方山 서쪽 기슭에 또 다른 산으로 솟았으니, 그 골짜기 입구의 안팎으로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말한다.

‘왕궁의 옛터가 두 곳 있는데, 우거진 숲 속에 두어 층의 층계만이 남았다. 이는 태조 이성계의 행궁行宮이다.’

소요산은 서울에서 1백 리이고, 풍양궁豐壤宮에서도 또 1백 리이다. 골짜기 입구에는 옛 우물의 돌난간이 남았다. 산중에 들어서면 산이 모두 돌이다. 봉우리와 동굴, 장명등長明燈과 다리도 다 돌로 이루어졌다. 산의 나무는 소나무·단풍나무·철쭉나무가 많다. 궁터가 있는 남쪽의 산에도 돌이 뽀족하게 솟았다. 가장 높은곳에 백운대, 조금 아래에 중백운대가 있다. 또 조금 아래 동북쪽으로 하백운대가 자리했으니, 중백운대 위쪽이다.

궁터 위에 폭포가 있는데, 높이가 8~9척이 된다. 그 아래 계곡을 거슬러 증백운대에 올라가면 큰 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빈터로 남았다. 폭포 옆으로 높이가 10여 길 되는 절벽에 비스듬히 걸쳐 있는 나무사다리를 올라가면 원효대이다. 원효대를 지나면 소요사가 있다.

.....

암벽을 타고서 깊고 험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아홉 봉우리를 바라보니, 산의 돌이 모두 기이하게 생겼다. 중봉中峯의 바위굴을 지나 현암懸庵의 동남쪽으로 나와 의상대에 오르자, 여기가 최고 꼭대기이다. 그 북쪽은 사자암獅子庵이다. 골짜기 입구에서 폭포를 지나 층층의 암벽을 따라 의상대에 오르기까지 높이가 9천 장丈이다. 10월이어서 산은 깊고 골짜기가 음산하다. 아침 비가 지나간 뒤라서, 시냇가의 돌에 낀 푸른 이끼는 봄철과 같고 단풍잎은 마르지 않았다.”



소요산 자재암 일주문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마음을 하나로 가다듬는 문이다.

소요산은 신라 때에 원효대사가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자재무애의 수행처로 삼아 645년에 자재암을 창건한 곳이다. 고려 시대인 974년부터 소요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본래 '소요逍遙'란 '기분 내키는 대로 거닐다', '바람을 쐬다' 혹은 '자적自適하여 즐기다'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지닌 낱말이다. 그래서 세상에 구애 없이 유유자적하는 스님들의 삶을 빗대기도 한다. 일례 로 '소요복逍遙服'이라 하면 가사袈裟를 뜻하지 않던가? '소요자재逍遙自在'라고 하면 '엮매임 없이 자유롭게 소요함'을 의미한다. 소요산에는 자재암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소요자재'의 산이다.

동두천에는 지금도 경의선이 지나간다. 동두천은 예로부터 북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고향 함경도에 머물던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권유로 귀경길에 삼 개 월가량을 자재암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때 이성계가 묵던 행궁行宮이 이곳에 남았지만, 나중에는 무학대사가 세운 포천의 회암사로 옮겨졌다고 한다. 오늘날 이곳에 있었다는 행 궁 자리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다.

- 다음 주는 “원효의 사랑 담긴” <소요산 자재암> 두 번 째 이야기 “원효폭포와 원효굴” 로 찾아오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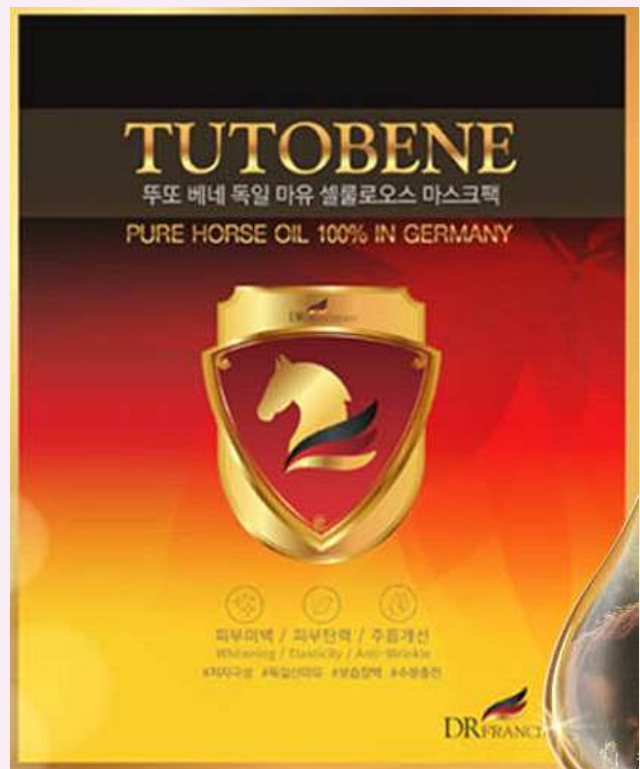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